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13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㉟ blog.naver.com/cityansan
- ㉠ facebook.com/ansancity3
- ㉡ twitter.com/ansancityhall
- ㉢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2월 17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02. 17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www.ansanarts.com

안산시립국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시너주요호 그로리나

2. 24 (수) 20: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김덕수

임상규

장사익

할인

- 50%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배우자포함, 복지카드 지참), 1~3급 동반 1인 포함, 4~6급 본인에 한함, 신분증 지참)
- 30% 청소년 할인 (만19세 미만, 신분증 지참)
- 단체할인 안산시립국악단으로 문의

관람연령 만 6세 이상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무료 경로(만 65세 이상, 신분증 지참)

주최 안산시 | 주관 안산시립국악단 | 문의 안산시립국악단 031)481-4097

안산시
행정부서
둘러보기

2

민원콜센터



궁금할 때! 신고할 때!
'1666-1234'

시정과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민생활 도우미

☎ 문의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7시 / 주말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민원콜센터는 전문 상담원이 시정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이용하여 민원을 상담해 주는 부서로 개소 3주년을 맞았다. 2013년 2월 시범 운영을 통해 5월에 문을 연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는 시민에게 '신속·정확·친절'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 지방세 고지서 안내, 주정차 과태료 조회 등 별도로 접수를 받던 모든 민원을 전화 또는 문자(SMS)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SNS통합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트위터(ansan_minwon)와 페이스북(facebook.com/ansanminwon)을 통해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안내 범위는 시청 전 부서와 상록·단원구청, 상록수·단원보건소, 도서관을 아우른다. 개소 이후 현재(16년 1월)까지 전화상담은 1,050,826건, SMS(문자) 3,120건, SNS(트위터, 페이스북) 4,451건을 상담·처리(96%)해 KS기준(90%)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환경교통국 2층 약 430㎡ 공간에 자리한 민원콜센터에서 매니저 1명, 강사 1명, 팀장 2명, 상담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상담원들은 3개 팀으로 나누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며 하루 8시간씩 시민을 응대한다.

Interview | 민원콜센터의 하루 김미선 상담원

Q. 시정 전반에 대해 알고 안내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숙지하나요?

A. 저는 2013년 8월에 입사했어요. 한 달 동안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 부서 업무 담당자가 준비한 상담매뉴얼을 익혔습니다. 기본교육이 끝나도 매일 교육을 받아요. 기본 정보 외에도 정책 변경, 행사 일정 등 광범위한 시정업무를 안내하려면 교육이 필수입니다. 또, 주 1~2회 간격으로 업무 심화교육, 상담품질향상 교육,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죠. 1년에 한 번 본사에서 주관하는 정기교육을 받으며, 전문상담원 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승급과 가점도 주어집니다.

Q.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A.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요. 이사하면서 요금정산 또는 명의변경이나 자동이체 등을 묻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나 자료 대출, 문화행사에 관한 문의가 많구요. 건강검진과 증진, 여권발급,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등을 문의합니다.

Q. 하루에 평균 몇 건을 처리하시나요?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전화로 응대하는 건수는 평일에는 1,500여 건, 주말과 공휴일에는 300여 건으로 상담원이 하루에 80여 건을 응대하고 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행정 용어나 법규 등 단어가 생소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했었죠. 장황한 설명 속에서 질문 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민원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우리 상담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격적 모독에 감정이 상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저희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 자 딸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Q. 센터의 근무여건은 어떤가요?

A. 전에는 무역회사에 다녔고, 상담원 일은 처음이지만 금융, 유통, 통신 등 다른 콜센터에 비해 환경이나 대우가 좋은 편이에요. 근무시간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야근이 없어요. 출퇴근이 일정하다는 건 가정생활과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자부심도 큰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는 온돌이 있는 취침실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휴게실에서 간식이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운동기구도 있구요.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하며 챙겨주고 네일아트, 안마 등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힐링프로그램도 열어줍니다. 칭찬릴레이 등을 통해 의욕과 활기를 돋우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어 좋아요.

Q.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경찰서, 한전 등 타 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업무를 물어오는 분이 많아요. 고질적 반복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로등 고장, 주정차 민원 등을 신고할 때는 전화보다는 사진을 첨부해 문자나 SNS로 보내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절하고 감사인사 만으로도 상담원들은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요.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다짜고짜 반말하기, 우격다짐 화풀이하기, 이것저것 트집 잡기, 안하무인 갑질하기”

“입장 바꿔 생각하고 다정한 말 오고 가니 갑도 을도 없는 세상 어우러져 살아가세.”

새해 들어 첫 선을 보인 '2016년 신년부전'이란 제목의 공익광고다. 이번 공익광고에서는 감정노동자의 80% 이상이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시정 전반을 최전방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며 살아가는 안산시가 되기를...

대부 로컬푸드 '심애태안' 시범음식점

지난호에 이어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산 고유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대부 로컬푸드 시범음식점 두 곳을 소개한다.

대를 잇는 대부도 인기맛집!

INFORMATION

문의 : 윤숙이네 손칼국수(032-882-1947)
주소 : 단원구 대부북동 1851-1



② 대부도의 신선함을 담은 < 윤숙이네 손칼국수 >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기 훨씬 전부터 대부도 인기맛집으로 유명했던 '윤숙이네 손칼국수 (이하 윤숙이네)'.

구 선착장 주변 식당거리에서 시작한 '윤숙이네'는 방조제 건설 이후 지금의 방아머리로 이전해 이제는 딸인 김윤숙 사장이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가업을 잇는 김윤숙 사장은 어머니 때부터 단골인 어르신들이 찾아와 "중·고등학생 때 네가 이랬는데..."라며 자신도 모르는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알이 꽉 찬 '간장게장', 산낙지를 데쳐 양념장, 버섯, 야채와 함께 철판에 볶아 먹는 '낙지무침'은 윤숙이네 대표 로컬푸드다.

풍도에서 외삼촌이 직접 잡아오는 싱싱한 꽃게는 물론 사생이나물, 달래 등 풍도의 자연을 담은 산나물들이 계절별로 손님상에 오른다. 낙지는 선감도에 사는 아버지 친구로부터 구한다. 낙지가 많이 잡힐 때는 어르신 혼자서 하루에 50~60마리도 거뜰히 잡는다고 한다. 낙지 수급이 어려운 여름에는 낙지메뉴를 판매하지 않는다. 일선에서 물러난 부모님은 땅을 일궈 고구마, 감자, 무,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고추, 상추, 오이 등은 식당 뒤 텃밭에서 키워 식재료로 사용한다. 김 사장은 "대부도 향토음식을 이어받고 지켜나간다는 사명으로 어머니의 손맛을 계량화하고, 나아가 토속음식을 개발하면서 대부도의 2대 사장님들과 함께 새로운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마지막 한 점까지 쫄깃하다!

INFORMATION

문의 : 풀이네 횡집(032-886-2666)
주소 : 단원구 대부동동 577



③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자연산 활어 < 풀이네 횡집 >

동주염전 가는 길 초입에는 회를 아는 고수들만이 찾는다는 '풀이네 횡집'이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손님을 맞고 있다.

박숙자 사장은 선감리 방조제 뚝방의 좌판에서 남편이 잡아온 횡감을 팔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전남 보성에서 대부도 어부에게 시집온 이후부터 30여년 넘게 횡감을 손질하고 매운탕을 끓여왔다고... 배 타고 대부도를 드나들던 시절에는 비포장 길이던 이곳이 지금은 관광객이 지나다니는 대로가 되었다며 30년 동안 손에 익은 회칼을 보여준다. 남편 임종운 사장은 1.83톤짜리 배로 20분 거리의 영흥도, 웅진군 이파도 주변에서 조업을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매일, 겨울에는 주 1~2회 바다로 나가 광어, 우럭, 송어, 간재미, 농어, 낙지 등을 잡는다. "바다 사정이 좋던 때에는 1톤 넘게 잡아 만선을 이루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획량이 줄었고, 멀리 나가야 물고기가 잡힙니다. 1년에 한두 번은 500kg, 평소에는 50~100kg 정도 잡아요."

'풀이네 횡집'은 자연산 활어를 찾는 단골이 많다. 너무 얇

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의 회는 씹는 순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깨끗이 씻어 냉장 보관해 놓은 옥돌 위에 얹힌 회는 마지막 한 점까지 신선함을 유지한다. 꽃이나 화려한 장식을 뺀 회 가격은 다른 횡집에 비해 2만~2만 5천 원 정도 저렴하다. 사이드 메뉴도 가짓수를 줄이고 대신 살아있는 해산물을 제공한다. 단골들만 온다는 '풀이네 횡집'은 점심시간에도 회를 먹는 손님이 많다. 매운탕은 뚝배기에 담겨 나온다. 투박하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맛으로 안내한다. 매운탕에는 고추장 대신 채려된장으로 비린 맛을 감추주고 감칠맛을 낸다. 가리비, 피조개가 듬뿍 들어간 매운탕은 보기에도 푸짐하고 시원하다. 낙지는 산낙지 그대로 또는 불낙, 낙지무침, 연포탕 등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조리를 하고, 간재미는 초무침으로 내기도 한다. 투박한 듯 정감 있는 맛집이 해솔길 소나무처럼 사철 푸르고 정직하게 속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MADE
IN ANSAN
기업탐방

엉뚱한 아이디어로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야옹친구’

| 대표상품 |

해충퇴치기와 탁상시계가 결합된 ‘캐치비클락’



야옹친구, 이름만 들어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벤처기업이 파는 제품은 이름만큼이나 독특했다. 캐치비클락. 처음 보면 그냥 예쁜 고양이 디자인 탁상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발상이 숨어있다. 고양이 모양 뚜껑이 파리채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파리를 공중에서 포획해 해충을 위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디테일한 기술이 캐치비의 비밀이다. 야옹친구 최성현 대표가 캐치비로 천진난만하게 파리 잡는 모습을 시연할 때, 재미있는 발상 뒤에 숨은 오랜 노력과 치열함을 엿볼 수 있었다.

‘야옹친구’가 있기까지

2014년 5월에 문을 연 야옹친구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던 최성현 대표가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워오다 만들어진 벤처기업이다. 2014년에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준비실로 입주하게 된 후, 다음해 2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업보육센터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산학협력도 체결했다. 처음 두 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현재 해외마케팅과 기술개발분야 직원을 포함해 4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최대표가 자동차 설계 출신이다 보니 모든 디자인과 설계는 직접 다 한다. “일당백이죠. 심지어 집에서도 계속 고양이 조립하고 있어요.”

위생적으로 해충을 제거하는 특허 받은 기술

1년 개발과정을 거쳐 출시된 캐치비클락은 파리의 비행특성과 특허 받은 기술을 사용해 파리를 재밌게 잡을 수 있는 기능에 디지털시계와 천연방향제가 결합된 제품이다. 고양이가 꼬리는 손잡이가 되고, 고양이 머리 부분에 체크필터가 있어 파리가 부딪혀 안으로 유입되면 빠져 나갈 수가 없다. 파리 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밖에서 뚜껑을 열어 파리를 내보내줄 수도 있고, 통을 가볍게 흔들어 킬링 해머라는 조그마한 망치에 충격으로 부딪힌 죽은 파리를 버릴 수도 있다. 캐치비를 사용하면 파리 사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해충을 잡을 수 있어, 어떤 제품보다 위생적이다. 사람 손 한번 닿지 않고도 죽은 파리만 깔끔하게 뚜껑을 열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 바퀴벌레도 가볍게 덮어서 얽은 종이 한 장만 깔고 뒤집으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 손대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최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아무리 고급스럽고 깔끔한 식당에도 한겨울에 파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상황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해충을 퇴치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때려잡는 파리채가 아니라 잠자리채처럼 공중에서 휘둘러 잡는 제품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본 것이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한 귀여운 고양이

최 대표의 기존 아이디어 상품이 기능에 많이 중점을 뒀다면, 상품성이나 디자인에 집중을 한 제품을 개발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친근한 고양이 이미지를 모티브로 회사이름, 제품 디자인, CI를 만들었고, 향후 개발하는 제품들도 고양이 특색들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양이 디자인이 워낙 귀엽다보니, 캐치비클락은 그동안 10여 편의 드라마에 배경 PPL로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말에는 KBS ‘아이디어 토크’이란 프로그램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소개됐고, 최근 제작에 들어가는 드라마에 주연배우가 직접 캐치비를 들고 파리 잡는 장면도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이 결합돼있어, 캐치비클락은 선물용품이나 판촉 홍보용품으로 꽤 인기가 높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한다.

아이디어 상품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업

창업한 후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최 대표에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물어봤다.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실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업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주변에 친구 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업체 분들을 찾아가 조언을 많이 구해야 한다.” 실제로 ‘야옹친구’가 엉뚱하고 재밌으면서도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최 대표의 꿈은 사장되는 좋은 아이디어나 제품들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인지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최 대표의 바람처럼 뛰어난 아이디어 제품들이 시너지를 효과를 얻으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다려 본다.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문의
주)야옹친구(www.yaong79.com)
☎ 031-400-3714
주소 : 상록구 한양대로 55, 창업보육센터 615호



도서관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감골도서관, 스마트폰으로 읽는 '책소리 서비스'

감골도서관은 작년 12월 말부터 새로운 책읽기 '책소리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책소리 서비스는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환경을 건전하고 유익한 독서환경으로 바꿔주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다. 스마트폰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교통카드, 휴대폰 결제 등에 널리 쓰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 스마트폰을 책에 대면 전문 성우가 책을 읽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책읽기이다. 책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책에 부착된 NFC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책의 내용을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다. 기존의 오디오북처럼 CD와 같은 저장매체와 별도의 재생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번거로운 인증 절차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더책'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고, NFC기능을 켜 후 '책소리' 기능이 설치된 도서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감골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체험 코너에서 아이 둘이 나란히 앉아 헤드폰을 끼고 동화책 「깜빡깜빡 도깨비」, 「빈집」을 읽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 김나형 씨(38세, 사2동)는 “한 달 전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책소리 기능이 있는 책은 검증된 책이라 대출해서 집에서 2주 동안 읽은 후 다른 책으로 교환해가고 있어요. 아이 혼자 듣게 하는 것보다 ‘블루투스’ 기능을 연결해 온가족이 함께 들으며 같이 웃고 느낌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TV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라며 “한글을 배우기에도 좋고, 영어책에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감골도서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도서는 500여 권이지만 앞으로 서비스 도서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기관, 초등학교 도서관에 수요 조사 후 도서를 대여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오3동 장수작은도서관, 만화 전문도서관으로 재탄생

지난 1월 30일, 본오3동 장수작은도서관이 '본오3동 만화작은도서관(이하 만화도서관)'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겨울방학 마지막 일요일, 만화도서관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득했다. 옆집 동생들과 함께 만화책을 보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 들성들성 이 빠진 시리즈 만화를 덮으며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을 아이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책을 훑는다. 책장에 기대앉아 웹툰을 읽는 여학생은 만화책을 쌓아놓고 한 권씩 읽어내던 추억의 만화방에 온 듯 여유롭다. 황인우 학생(상록초6)은 “전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바닥에 앉아 볼 수 있어서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주제가 있는 서가’ 코너에서 소개하는 만화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라며 붐방학에도 자주 오겠다고 했다.



감골도서관은 오늘날 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로서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는 만화를 주제로 도서관을 조성해 어린이학습만화와 웹툰 등 3,200여권의 만화를 선보였다. 일반만화 코너에서는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강풀, 허영만, 윤태호 작가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식객」, 「미생」 등과 '네이버 조회수 2억 베스트 웹툰', '웃음 조회수 100만명'이라는 부제가 달린 웹툰에 먼저 눈길을 간다.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전시작인 일본 군 위안부 만화 「나비의 노래」, 「도라지꽃」, 「시선」 앞에서 잠시 숙연해진다. 김광성 만화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만화로 만들었다고 한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책등 20권에는 하늘을 나는 용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아들러 심리학」, 「감정코치K」 등 읽기 쉽지 않은 심리학과 철학, 인문학을 다룬 책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다. 딸아이와 함께 와서 「먼 나라 이웃나라」를 읽던 조경희 씨(35세, 본오3동)는 “집이 가까워 그동안 자주 이용했던 도서관이 만화도서관으로 바뀌다니 놀라워요. 이 기회에 5학년이 되는 아이에게 만화로 된 역사책을 읽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 읽지 못했던 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라며 만화가 아닌 일반 도서를 접하기 어려워진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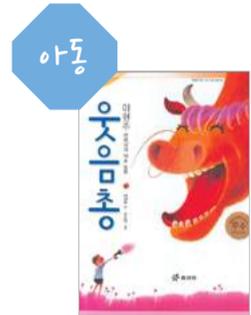
만화도서관은 웹툰 작가나 관련 직업을 꿈꾸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이미지디자인을 재능기부 받아 내부 인테리어에 반영하고, 디자인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공간디자인으로 활용하는 시민참여형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자관도서 타도서관 책드레 대출을 제외한 도서 대출이나 반납 등 서비스는 이전과 동일하다.

☎ 문의 : 감골도서관(031-481-2665) / 본오3동 만화작은도서관(031-406-8473(상록구 각골로 7길 9))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책읽는 안산 / 2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웃으며 삽시다



웃음총

저자 이현주 / 출판사 효리원

‘웃음총은 빨간 조끼를 입은 꼬마 난쟁이가 내게 준 건데, 이 총을 한 방 쏘면 시무룩하던 얼굴소도 웃고, 투덜대던 나무도 웃고, 심술쟁이 울보인 동생도, 도둑도, 형사도 활짝 웃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는 얼굴이라면, 온 세상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웃음총을 마구 쏘아댔는데 이 웃음총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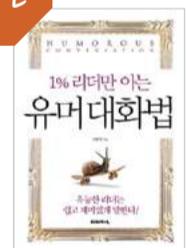


행복한 수업

저자 김준호 외 / 출판사 크리스마스북스

스토리 디렉터로 참여한 명로진 작가의 해설이 덧붙여져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지고 주제의식은 훨씬 분명해졌다. 가슴 찡한 도전의 이야기들은 꿈과 성공을 향한 도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진심어린 목소리로 전한다.

성인



1% 리더만 아는 유머대화법

저자 임봉영 / 출판사 미래지식

가장 효과적인 대화는 ‘경청 - 질문 - 설득’ 3단계에 핵심을 찌르는 유머가 어우러질 때라고 말하며, 롤모델로 유재석, 손석희, 레이건, 처칠 등을 선정하여 그들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통해 유머구사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더불어 이야기 사이사이에 ‘유머가 통하는 3단계 전략’, ‘화법의 네 가지 유형’ 등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TIP을 제시하고, 각 장에 ‘경청의 달인이 되는 비결’, ‘설득의 달인이 되는 길’ 등 ‘1분 유머처방전’도 수록하였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아름다운 곡선과 한국 전통 오방색과의 만남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정지석 화가의 'HAPPY LOVE'

향토사박물관 전시관에서 2월 29일까지 전시해

향토사박물관에서는 오는 2월 29일까지 정지석 화가의 'HAPPY LOVE' 개인전이 열린다.

정지석 화가는 작품 초창기에 극사실풍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으나, 5년 전부터 오방색에 관심을 가지고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수채물감과 유화물감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혹은 파스텔톤 색감에서 느끼지 못하는 다른 강렬한 느낌을 찾기 위해서였다.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HAPPY LOVE(행복한 사랑)'를 테마로 한 전시, 뉴욕 스콥아트페어(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2015년), 맨하탄첼시 wimmer갤러리, 중국 다렌(금석탄박물관), 일본나가노칸(나가노시) 등에서 37회 개인전을 열었다.



HAPPY LOVE, 정지석

세계가 주목한 아름다운 곡선과 한국 전통 오방색과의 만남

2014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를 통해 정지석 화가의 전통적인 오방색의 화려함과 장생들의 평화로운 어울림 전시는 미술가들과 미국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는 세계적 전시 공모를 통해 당당히 서양화 부문으로 전시를 마치고 앵콜 전시를 할 만큼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2015년에는 미술가와 미국 미술관장 추천이 있어야만 전시가 가능한 미국 뉴욕 스콥아트페어(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전시를 열었다.

'HAPPY LOVE' 그림 속 이야기에 대해?

'HAPPY LOVE'라는 테마의 그림은 선과 오방색의 만남이다. 오방색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하얀색으로 우리 전통 색감이다. 그림 속 선은 이렇게 저렇게 다 이어져있다. 시간의 흐름을 선으로 이어 표현했다. 산을 가다 나무로 이어지고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이 만나고 교감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해와 달, 그리고 다섯 봉우리가 있고 십장생 중 하나인 구름이 산허리를 감고 있다. 이름 모를 꽃잎이 중첩돼 속삭이고 있다. 그림을 보면서 동화되어 바쁜 삶 가운데 마음을 쉬게 하여 보는 이들이 휴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품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2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 있다. 2년 동안 계속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림을 수정하고 고민하기도 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잘못된 곳을 발견해냈기 때문이다. 화가는 자기 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그림을 올리더라도 지구촌 사람들이 보는 내 그림이니 만큼 작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림은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천천히 바르고 또 바르며 마르도록 기다려야 한다.

문화 예술이 나아가갈 방향과 바라는 점은?

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 누군가 앞장 서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한다.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 부분이라 생각한다. 미술작품이나 공연 등 예술을 통해 화난 마음이 풀리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된다면 그 자체로 문화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 예술가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행위로 자기만족과 사회에 대한 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문화 예술은 지역에 한정되면 안 된다. 누구나 그림은 잘 그린다. 그렇기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남이 내 놓지 않은 걸 내놓으면 누군가는 쳐다봐 줄 것이다.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기를 바란다.



정지석 화가

정지석 화가의 그림에는 빨간색 즉 붉은 색이 꼭 들어간다. 빨간색을 쓴 이유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희망적 메시지를 얻기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전통 오방색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곡선의 다양한 작품을 안산문화원 향토사박물관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음악을 그리다"

안산시립국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안산시립국악단 20년의 디딤돌로 20년의 새로운 역사를 그린다!

안산시립국악단은 오는 2월 24일 저녁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안산시 승격 30주년 및 안산시립국악단 창단 2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시립국악단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새로움을 그리다'**를 연다.

올해로 성년이 된 안산시립국악단은 그 동안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동시대 음악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국악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계승 발전해 가야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20년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번 연주회는 서곡은 <꿈의 전설>로 임상규 지휘자가 직접 작곡하였으며 관현악과 무용이 어우러져 화려한 문을 연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고의 비보이 하휘동(비뷰어쇼크)와 세계대회 우승 팀인 엠비크루가 멋진 비보이 배틀로 공연장의 열기를 달굴 것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안산의 역사적 배경으로 창작된 뮤지컬 <꼭두별초>의 하이라이트를 모았으며, 다음무대로는 사물놀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김덕수와 함께 <사물놀이협주곡 '신모듬'>으로 흥과 신명을 이끌어 내고,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장사익의 노래가 이어진다.

이번 공연의 대미는 2006년 안산시립국악단 창단 10주년 기념 위촉 작품인 국악관현악과 합창 <안산환상곡>을 세계적인 합창단인 안산시립합창단과 안산시에 활동하는 5개 합창단이 함께해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마무리 한다.

안산시립국악단 임상규 상임지휘자는 "앞으로 안산시립국악단은 변화하는 음악,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통음악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키워드를 창작음악으로 흡수하여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자 한다."며 새로운 20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관람은 만 6세 이상 가능하며 R석은 50,000원, S석은 30,000원, A석은 20,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립국악단(031-481-4097)으로, 예매는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1544-1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립국악단이 최고의 게스트들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펼치는 최고의 무대



1996년 창단한 안산시립국악단은 전통음악의 현대적 계승과 한어 융화의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간 100여회의 국내외 공연과 활발한 해외 공연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영감이 넘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임상규지휘자가 이끄는 안산시립국악단은 명실공히 전통과 미래를 교감하고 선두에 나서는 창상의 악단으로 우뚝 서 있다.

이 시대 최고의 객(客) 진정한 음악인 장사익 세계를 품에 안은 사물놀이의 황시자 김덕수 우리나라 최고의 B-boy들이 펼치는 Big Battle이 국악관현악과 함께한다.

PROGRAM		
01 꿈의 전설	02 Big Battle of B-boying	03 꼭두별초
04 사물놀이협주곡 '신모듬'	05 with 장사익	06 안산환상곡

출연진
장사익 | 김덕수 | B-boy단 | 하휘동(비뷰어쇼크) | 엠비크루
안산시립합창단 | 안산시여성합창단
상곡구여성합창단 - 단원구여성합창단 | 화림선합창단 | 호수동여성합창단



눈 덮인 항가울산에서 고라니를 만나다

동네 숲에서 즐기는 작은 겨울 여행

아침부터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이던 날, 항가울산으로 향하는 사1동 다세대주택가 계단을 올랐다. 추운 겨울 황량했던 동네 뒷산이 함박눈을 만나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다. 초록 소나무에도 나무벤치 위에도, 낙엽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5분쯤 걷는데, 땀이골로 가는 길목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황갈색 물체가 눈앞에서 휘익 지나갔다. 이 산에 고라니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고라니를 본 건 처음이었다. 눈 덮인 나무 사이에서 잠시 멈춰있던 고라니는 까만 눈으로 나를 한참동안 바라보더니, 태연하게 눈앞에서 사

라졌다. 아무렇지 않은 고라니와 달리, 오히려 놀랐던 건 내 쪽이었다. 야생 고라니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보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후에 이 동네에 사는 생태안내자 최은영 씨에게 물어보니 항가울산에서 고라니를 마주치는 일은 꽤 흔하다고 했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시화호가 근처에 있어서 동물들이 사동 주변 산으로 왕래를 자주 한다. 고라니뿐 아니라 너구리 가족도 이 산에 살고 있다. 동네로 내려온 너구리들이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도 종종 봤다.”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을 도심지 주택가에서 이렇게 가깝게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산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니 새삼 자연이 경이롭게

다가왔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고라니와의 짧은 만남은 눈으로 뒤덮인 산에 더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했다.

항가울산은 마을 구석구석에 입구가 많아, 유난히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이다. 눈이 많이 온 날이면 어린이들의 눈썰매장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집 유아들의 숲 체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어르신들의 운동공간이자,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을 즐기는 가족단위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간 중간 나 있는 작은 오솔길로 따라가면, 감골도서관이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땀이골을 도보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둘레



길을 걷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파르지 않은 산책코스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상록구청에서 원래 있던 길을 상록트레킹 코스로 만들어, 이곳을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향가울산 길은 2.5km 거리,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코스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명휘원, 경기테크노파크를 지난다. 상록트레킹 코스를 알리는 나무 표지판에는 '어머니 품처럼 부드러운 길'이란 별명으로 이곳을 소개했다. 향가울산의 완만한 오솔길을 자연스럽게 걷다보면 정말 그 별명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쪽으로 가는 산길에는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정비되어 있어, 그 위로 함박눈이 소담스레 쌓여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울타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눈은 꼭 누가 일부러 솜을 붙여 놓은 것처럼 탄력있게 붙어있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나무 울타리가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 눈밭에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그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만만하게만 보였던 향가울산에서 어쩌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야기처럼 익숙한 장소로 들어가, 낯선 장소에 도착할 수도 있을 듯싶었다. 어쩌면 거미줄처럼 연결된 향가울산에서 제대로 길을 잃어보는 것도 이 산을 제대로 체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여행이 일상을 낯설게 보는 연습이라면, 꼭 멀리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동네 뒷산에서 여행이란 걸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가울산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교회, 학교, 도서관 등 어떤 길로 내려가든 새로운 공간과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볼 수 있다. 길목 어딘가에서 고라니와 너구리 가족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해가 지는 향가울산 눈밭으로 어느덧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순간을 붙잡을 새도 없이 산속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밭에 발자국 몇 개를 기억처럼 남겨놓은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눈 자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남아있었을까.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FOREST WINTER



MADE IN 숲

2016년 한 해 동안

숲 이야기를 연재한다.

겨울 숲, 사색하기 좋은 숲, 운동하기 좋은 숲,
데이트하기 좋은 숲, 가족나들이하기 좋은 숲,
힐링하기 좋은 숲, 생태 숲, 아파트 숲 등
숲의 다양한 기능과 추억을 담는다.

겨울숲 2

이철현 동산노인복지관장, 공직자가 본 광복 100년의 미래 안산 출간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이철현 관장(현 동산노인복지관장)이 「공직자가 본 광복 100년의 미래 안산」이라는 도서를 출간했다. 이철현 관장은 1980년 3월, 안산과 인연을 맺고 시장비서와 공보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2006년 11월에 안산시 복지환경국장으로 퇴임했다. 도서를 통해 공직자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에게 전수하고, 미래비전 수립의 밑거름이 되어 '안산비전'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는 이 관장을 만났다.



Q. 「공직자가 본 광복 100년의 미래 안산」에 '안산 홍보전 도사의 긴 여행'이라는 부제가 인상적입니다.

이 책에 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A. 안산시는 서울 중심부와 동북아 최대인 인천국제공항이 40분 거리에 있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반월공단, 전국 최고의 도시녹지율, '바다'라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산업, 문화, 해양이 어우러져 미래에 서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의 안산시를 만드는 데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업무를 추진한 안산시 전·현직 사무관 이상 공직자 91명의 의견을 통해 안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Q. 미래 도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현재는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한발 앞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정책, 기술을 준비하면 막대한 기회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안산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안산시는 권역별로 제조업, 다문화사회, 대부분도와 시화호를 중심으로 자연생태환경도시, 반월·수암동을 농촌지역

으로 나누어 특색 있는 도시로 가꿔나가야 합니다. 기술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 숲의 생태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첨단 산업도시와 더불어 다문화와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로의 발전, 시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100만 도시로 성장을 통해 광복 100년의 해인 2045년에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세계 30위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Q. 공직생활을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표현한다면요?

A. 시민들이 믿음으로 공직자인 나를 따라줄 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해나아가는 것을 느낄 때 가장 기뻐요.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시의 지향점을 믿어주지는 않아요. 토론 없는 독선적 고집으로 시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무척 속이 상합니다. 공직자로서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볼 때 많이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현재 저를 노인복지관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애로사항 등을 공직자로서 정책을 세워 해결했을 때 쾌감을 느끼곤 했지요.

Q. 동산노인복지관이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시·국비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독거노인에게 말벗을 해드리거나 병원 동행, 간단한 가사 정리를 돕는 '노노케어'와 월 20만 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료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은 스쿨존 지역 교통 지도, 아동보호, 놀이·학습 지도, 도서관 프로그램 보조, 자전거 수리, 초등학교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몸도 건강해지고 활기가 생깁니다.

이중 도서관 일자리 사업은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창안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산 지역에 303개 일자리(명)를 창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었고, 어르신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Q.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공직자는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며 동료 공직자들과 협력해서 선(善)을 실천하는 길과 흔적이 되면 좋겠어요. 국가로부터 얻은 지식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마음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축구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OB축구단

땀 흘리며 운동하니 건강과 친목이 다져져요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장을 종횡무진하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안산신도시 OB축구단 회원들

한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단연 축구다. 한국갤럽이 2004년 조사 이후 10년만인 지난 2014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 등산, 야구, 수영, 걷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이며, 10대에서 50대까지의 남성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축구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혔다. 반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등산, 수영, 요가로 나타났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년의 남성 운동장을 달린다

2009년 창단한 OB(Old Boys)축구단은 50대 남성들의 모임으로 일주일에 한번 축구를 즐기고 있다. 처음엔 각자 거주지에 속한 단일팀에서 축구를 즐겼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 또래끼리 모여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 까하는 마음에 의기투합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은 안산시 내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하거나 인근 지역 팀들과 경기를 하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2014년부터는 경기도 인근 4개의 축구 클럽이 연합해 매년 4월과 9월에 축구대회를 열고 있다. 창단멤버인 황정수 단장은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 많은 시간을 내지 않고, 비용도 저렴해 생활 속에서 즐기

게 축구만한 운동이 없다. OB축구단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젊을 때, 주말 스포츠를 즐기러 나가면 아내와 아이들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부모도 가끔은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중년이 되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감사할 때도 있다. 박인수 사무총장은 "업무에 지쳐 피곤해도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운동 후 가끔 식사를 하거나 뒤풀이를 할 때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드러내고 말할 만큼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며 또래 축구의 장점을 얘기했다. 이제 50대가 주축이 되었던 OB축구단에 60대로 진입하는 사람이 생겨 앞으로 SB(Silver Boys)축구단을 구성해 OB와 SB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는 게 OB축구단의 계획이다.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처럼 이웃의 정을 만끽하는 중년들. 이웃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하다는 그들의 축구 사랑은 엄동설한에도 기세가 등등하다.

☎문의 : OB축구단장(010-6340-1957) / OB축구단사무총장(010-7799-5717)
김은미 명예기자_iam34@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산시의회, 11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안산시의회가 1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측에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성준모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훈동 회장, 적십자 봉사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삼고 모금을 진행 중이며, 의회도 사회 공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에 동참했다. 성준모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 앞서 김훈동 회장 및 적십자 봉사원들과 환담하면서 모금 과정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성준모 의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 각계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소외받고 힘든 이웃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찾아 격려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지역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3곳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3일 상록구 이동에 자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하늘빛샘'을 방문하고 4일에는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한 데 이어 5일에는 대부도 대부북동 노인주거 복지시설 '행복의집'을 방문해 시설 근로자와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금은 의회 공통경비를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설날 명절을 앞두고 소외 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준비된 것이다. 성준모 의장은 “입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더욱 많은 지원과 후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입소자들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오전 10:18 그런데 말이야. 저번에 말했던 일은 어떻게 되었어?

오전 10:19 아~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어. 이번엔 공을 많이 드리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전 10:19 애셨어.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네 의지와 열정이 대단할 뿐이다.

오전 10:20 고마워. 걱정되는 만큼 더 철저히 준비했는데 직접 적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 긴장도 있지만 기대감도 한 가득이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 요즘 아주 살맛난다.

오전 10:21 역시, 너답다. 어떠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네가 곁에 있어 나도 덩달아 기운이 솟는다는 거 알지?

오전 10:23 고마워. 내가 묵언을 하든 늘 지지해주는 네가 있어 더 힘이 난다.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자주 가는 식당에서 보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뉘지 얘기 해줄게.

전송



드리고는 **‘들이고’**라고 써야 맞습니다.
 ‘들다’는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또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는 뜻으로 씁니다.
 예》 밤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다. / 잔치 음식에 품이 많이 든다.

벌리는은 **‘벌이는’**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는 뜻으로 씁니다.
 예》 잔치를 벌이다. / 마루에 갖가지 도구를 벌여 놓았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i34@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제시

안산시는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과 ‘탄소제로도시 대부도 조성’의 의지를 담은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안산환경재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공주택입주대표 등 에너지 관련 기관과 단체, 시민이 한데 모여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식을 갖고 ▶에너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도시 ▶에너지 프로슈머 도시 ▶저탄소 스마트 도시 ▶에너지 일자리 혁신도시 ▶깨어있는 에너지 시민들의 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이룰 것을 결의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관·단체·시민과 함께 안산을 녹색 도시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에너지 비전 2030은 2015년 12월 파리국제기후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출범이 가시화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6년을 ‘안산시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와 추진 원년의 해’로 선언하며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비전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은 집집마다 태양광을 이용한 1가구 1발전소를 목표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해 안산의 전력자립도를 현재의 84%에서 2030년 200%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목표만큼 확대해 사용하게 되면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절약된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며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안산시는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옥상에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오고 있다. 중앙도서관 옥상에는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이 2013년 설치한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1호기가 연간 3만8천 kWh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와~스타디움 주차장 3층 옥상에는 1호기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4호기가 가동 중이다.

시민들은 녹색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 등에 소형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시민실천운동 등에 참여해 왔다.

안산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강화하고, 대부도 카본제로 도시 조성 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복지 공동체 실현과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811)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 상록수 최용신 선생 81주기 추모제 >

‘최용신, 사랑하는 사람들’ 음악회 열려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님의 노래’가 지난 1월 23일 최용신 선생의 추모음악제에서 불려졌다. 1월 23일은 최용신 선생이 과로 끝에 쓰러져 장중첩증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지 8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일제 강점기 농촌계몽운동과 어린이 교육에 헌신했던 최용신 선생. 안산시 최용신기념관과 안산문화원은 선생의 81주기를 맞아 선생이 살아생전 활동했던 상록마을 샘골교회에서 추모음악제 ‘최용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련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최용신 선생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선생님을 사랑하며 뜻을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편의 음악회로 재탄생했다. 선생은 가셨지만 선생의 사랑이 곳곳에 남아있는 샘골마을에서 사람들은 노래로써 선생님을 추모하고 기렸다. 안산디자인문화회 합창단을 비롯해 피스파이어 어린

이 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은 선생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과 최용신 선생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들을 선사했다. 반월중앙교회 김영식 장로는 어린 시절 샘골마을에서 배웠던 ‘기독교농민가’를 불렀다. 최용신 선생이 돌아가신 후 샘골 마을에는 선생의 뒤를 이어 농촌계몽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식 장로는 그 당시 배웠던 노래를 잊지 않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무대에 섰다. 피스파이어 어린이합창단은 흰색 무명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의 꽃과 에텔바이스’, ‘평화의 기도’를 불렀다. 조선의 꽃은 일제치하 조선의 희망은 배움이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담긴 곡이다. 일본말을 국어인줄 아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국어는 조선어임을 가르쳤던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다.

노래를 기억하는 제자와 그 아들·딸들은 이 노래를 샘골강습소 교가라고 불렀다. 아이들이야말로 조선의 꽃이며 빛, 싹, 보물이라 했던 선생의 제자사랑이 담겨 있다.

안산시립합창단은 ‘You raise me up’, ‘Amazing Grace’를 들려주며 추모의 자리를 더 한층 뜻 깊게 만들었다. 추모제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립합창단의 선창으로 ‘상록수’를 따라 부르며 선생을 추모했다. 안산시 전통옥 문화복지국장은 “오늘 추모제는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신 최용신 선생님의 상록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최용신기념관(031-481-3040)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세월호 생존학생의 쉼터, ‘쉼표’를 말하다

고잔동 단원고 옆
오래된 건물에는 쉼표가 그려진 작은 간판이 있다.
자바르떼에서 운영하는 세월호 생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쉼표’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새 모양 나무 조각에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놓은 조각품이었다.
생존 학생들이 우드버닝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직접 새겨 넣었다는 나무새들은 저마다 모양이 달랐지만
떼를 지어 하늘을 날고 있었다.
자바르떼 장성희 대표의 말을 들으며,
그 많은 친구들 이름을 새겨 넣었던 아이들 마음을
상상하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졸업했을 텐데...”



‘쉼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생존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2014년 말부터 나왔어요. 아이들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복잡한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케어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그 당시에는 더 급한 문제들이 많아, 어디다 말 꺼내기도 미안한 상황이었죠. 생존자 가족과 지역에 계신 뜻있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며 생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2015년 내내 준비했어요. 더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광주시민상주모임, 안산희망재단, 초록우산재단에서 공간지원을 도와주셨고, 정읍시민모임과 희망연대 T브로드 노조에서 쌀과 김치, 간식 등을 계속 대주고 계세요. 지난해 10월에 가오픈을 하고, 11월에 개관을 했어요. 애들 졸업이 1월이었으니 많이 늦었죠. 쉼표는 기본적으로는 생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장기적으로 안산지역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쉼표’란 이름도 생존 학생들에게 직접 공모 받아 지었죠.

‘쉼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

이곳은 말 그대로 쉼터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아이들이 정말 쉬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방과 넓은 홀, 그 안에 동아리방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와서 영화도 보고, 온돌마루에서 자기도 하고, 뭘 해먹고 알아서 치우고 가요. 동아리 봉사모임과 축구모임은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편하니까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서 조금씩 많이 오게 됐죠. 생존학생 75명 중 50명 정도가 왔다갔고, 이 중 자주 오는 아이들은 20~30명 정도 되요. 3월부터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곳을 생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기는 어려워, 단원고를 중심으로 한 인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려고해요. 물론 한 달에 한번정도 같이 밥 먹는 정기모임은 유지하고,

아이들 모임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쉼표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단원고가 있는 이곳이 고향같이, 집처럼 오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단원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은 특별한 대우, 특별한 취급을 받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야 같은 학교, 같은 동네 안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였다면 3월부터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하는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 얘기가 나오면 일단 부담스럽죠. 본인이 그런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런 시선들을 개별적으로 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사건을 겪었는데, 그것이 치유되고 감히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 우린 잘 모르죠. 아이들 삶에 언제 그런 아픔이 드러나 그게 영향을 미칠지, 또, 언제 회복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쉼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생존 아이들을 위해 이 공간을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은 계속 가고요. 또, 마을 공동체를 복원을 위해 청소년들과 문화예술로 재밌게 노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과 음악동아리도 만들면 좋을 거 같고, 손 움직이며 앉아서 수다 떨 수 있는 목공예, 뜨개질, 도예 같은 활동을 해봐도 좋을 거 같아요. 쉼표는 이 지역에서 다시금 청소년들과 함께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에요.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건강의 적신호 **고혈압·당뇨병**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교육센터, 유용한 프로그램 진행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교육센터(이하 고당센터)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과 관련해 등록관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문자 그대로 혈압이 높고 당분이 오줌으로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시나브로 증상이 심해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고혈압·당뇨병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심뇌혈관이나 망막 등 우리 몸 속 각종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합병증으로 이어져 아주 위험해 질 수 있다.

안산시 고당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생활습관 병이기도 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자신이 직접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박성희 팀장은 “혼자 자신의 몸을 관리하며 건강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고당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고혈압 관련 교육이 있다. 당뇨병 교육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혈압과 혈당수치를 낮추는데 필요한 각종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자가 혈당 측정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매월 1·3주 수요일에는 고혈압·당뇨관리를 위한 ‘건강요리교실’이 열려 나트륨 함량과 칼로리를 계산한 요리를 직접 만든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문의와 약사, 영양사와 함께하는 ‘고당교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빼놓을 수 없는 운동요법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교실’이 매일 운영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혈당수치가 높아 직접 관리가 필요한 회원에게는 혈당측정기 150대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또 체질량 지수가 높은 등록회원이 3개월 이내 체중 2kg 감량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3만 원 권 상품권을 제공한다. 감량한 체중을 이후 2개월 이상 유지하면 2만 원 권 상품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상록수보건소에 왔다가 3층에 있는 고당센터를 방문한 이옥순(62세·상록구 부곡동)씨는 “혈압 약을 복용중인데 주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 편리하고 든든합니다.”라고 말했다.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당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교육센터(031-416-9088)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안산 시민시장

재래시장의 또 다른 이름은 추억이다.
안산시민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온 듯 지난 감흥에 젖을 수 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_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산 도서관

때로 어떤 성공은
누가 더 많이 도서관에 앉아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_econojin@naver.com





안산시 장애인들과 함께 가는 안산의 이웃들

남편의 회사에서는 간부 사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도 늘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봉사의 주된 일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장애인 시설에서 만드는 물건을 여기저기 팔아주는 일이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만든 한과와 찹쌀떡을 주문해 친척집과 이웃집 등에 할당을 줘서 팔았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장애인 단체를 돕는 일이라면 선뜻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큰 돈은 아니라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아예 친한 친구나 친척들에게는 “돈 3만 원 없어도 살지?”라며 확 떠맡겨버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낯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주는 일이 정말 큰 보탬이 된다.

시설 관리자에 따르면 1개에 1,300원씩 소비자에게 팔리는 찹쌀떡의 경우 만드는 쪽에서 남는 이윤은 겨우 200원이라 한다. 워낙 재료비가 비싸다 보니 불가피하게 중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고, 겉포장에도 찹쌀과 팥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해 놓는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왜 그런데서 만드는

물건인데 국내산을 안쓰세요?”라고 묻는 경우도 적잖다. 그럴 때마다 그곳의 어려움과 현실을 말하며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지만 사정 이야기를 듣는 시민들 모두 금세 이해해 주신다.

물론 찹쌀떡은 음식을 만드는 주부 입장에서 봐도 참 맛있고, 크기도 일반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넘데데하니 크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들이 장애인이라서 어디에 가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처지와 동료 의식을 함께 나누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그분들이 만드는 물건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일터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게 훨씬 값지고 중요한 일이었다.

안산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곳인데 시설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을 받아 들일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한다.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이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장애인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일자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 보았다.

오늘도 내가 이분들을 위해 발로 뛰어나다며 찹쌀떡을 팔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분들의 함박웃음이 나의 가장 큰 ‘이이익’

이니까. 안산시 내 모든 장애인들이 올해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모든 안산시민들이 이들과 함께 가는 사회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윤현숙(선부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안산 다자녀 가정은

신청하시고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1.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2016년도 입학예정인 자
2. 지급액 : 30만원(1회)
3. 신청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입학 또는 합격통지서 등 신입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각 1부
4. 지급일 : 매월 20일

*접수 및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행복 나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부로 신청해 주세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분야를 신청 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단체)

지원내용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농·어촌 일손지원, 복지시설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목실·복우·대봉 등 피해지역 복구 지원, 지역 환경정화 및 공익 행사 보조 등 지역사회 지원 활동

신청방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안산보호관찰소(031-400-1432) 방문, 전화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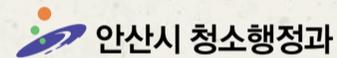
우리가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안산시 클린투어와 함께해요!

안산시의 재활용품, 일반·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 및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연중(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가능인원 40명 이하(20명 이상은 예산범위내 버스지원)
- 참가신청 전화 : (031)481-3538 / 팩스 : (031)481-3635
- 견학코스 음식물처리장(50분) ⇨ 재활용선별센터(60분) ⇨ 자원회수시설(50분)
- 견학내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 자원재활용 방법 및 효과, 쓰레기처리 및 소각과정, 환경서약서 작성

* 견학은 만 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 견학 후 봉사활동실적 인정 / 견학코스는 처리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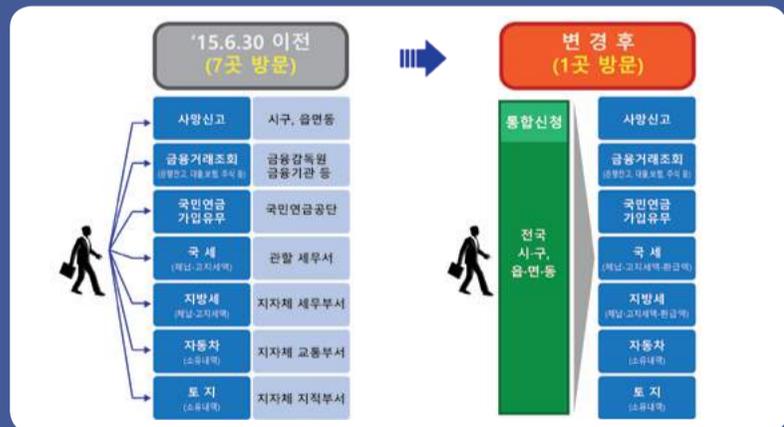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6. 2. 15.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읍·면·동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읍·면·동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정부3.0 안심상속」 이용방법!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제1순위 상속인 신청(자녀, 배우자) *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대습상속인 신청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신청 	신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0일 이내 (토지·자동차·지방세)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금융) www.fss.or.kr 확인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	---	--

*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토지·자동차·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지적과·교통행정과·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농수산물



* 바지락의 효능

- 빈혈 예방 효과**
바지락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철분과 비타민B₁₂는 조혈작용을 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동맥경화 예방 효과**
혈액 속의 악성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타우린 성분이 바지락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숙취 해소 효과**
비타민B₁₂는 간 기능을 강화하여 숙취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바지락 고르는 방법

- 입을 단단하게 다물고 있는 바지락이 맛이 좋습니다.
- 껍질이 깨져있지 않으며 무늬가 확실한 바지락이 맛이 좋습니다.
- 살이 단단한 바지락이 맛이 좋습니다.

* 맛있는 바지락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 살아있는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이상 담궈두면 뽕이나 모래가 빠져나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바지락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 각종 오염물질에 쉽게 노출되므로 첫걸이나 날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취로 다음날이 괴로운 당신을 위한 필수 먹거리 바지락!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